

# 오늘 도의회 임시회 개회

### 12일동안 본격 의정 돌입... 코로나19 극복 위해 편성 도·교육청 추경예산안·민생관련 안건 28건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27일, 제37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민생관련 안건 심의 활동을 펼친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조속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

지사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이 있으며, 28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펼쳐지며, 5. 4일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 등 총 28건(조례안 18, 예산안 4,

기타 6)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달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에 벗어나 지역사회의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적극적인 도정업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371회 임시회는 5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김진성 기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2차 임시회'를 연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에 반영해야”

###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 송성환 도의장 “농업 다원적 기능에 사회 구성원이 공감” 의장단, 총원 어려움 겪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등도 건의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정부차원에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전국시도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농업농촌의 유지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농민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의장이 발의한 '농민공익수당 국가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문'에 따르면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뿐 아니라 지역사회유지와 환경보전·경관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데도 산업화와 개방화 경제정책에 따라 기반이 흔들리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조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정책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재정부담에도 전북과, 전남·울산·충남·강원 등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

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회의 의장들은 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국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등도 건의했다. 가축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은 과중한 업무 등으로 가축방역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어 근무환경 개선과 증원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장단은 또,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역 개념의 대기관리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동일 권역내 대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코로나 민생안정 촉구 결의’

### 오영근 도의원 대표 발의... 오늘 본회의서 처리 예정

전북도의회 의원(전주 2·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총 6개의 주문을 담은 결의안의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도의회사무처의 국외정책연수와 국외여비 예산 전액과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합쳐 긴급재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도의회 자정 결의의 내용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 분청과 직속기



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내용도 담았다.

해당 시설의 입주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한시적 경감 및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의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번 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행사성·일회성 경비 등을 전액 감액해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고,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자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코로나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감면과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를 추

진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4대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도 촉구 하고 나섰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에 봉착한 만큼, 생계유지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총선공약을 여야 모두는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오영근 의원은 "코로나의 국내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치달음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일반 서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생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7일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과 국회, 기재부, 전북도, 도교육청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조동용 도의원 “도 교육청 건축행정 업무체계 개선 필요”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창의적 학교건축공간설계를 위해서는 도 교육청 건축행정 업무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2020.1.16. 시행)으로 올해부터 건축기획업무 신



설 및 설계공모방식 확대 적용 등 공공건축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행정조직 및 업무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학교건축을 포함한 공공건축 건립 시에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설계발주가 가능해진다.

조 의원은 "그간 공공건축은 일부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치적

성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종종 치부되어 왔으며, 공공건축의 예산낭비성 과도한 설계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를 감당하는 등 기획이 결여된 설계가 이루어져 왔다."

며, "특히 수십 수백 억의 예산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짓고도 다른 지역과 차이없는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 지역의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용자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진성 기자

## “진안 의료원 국·도립화 해결 최우선”

### 민주 안호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진안군의료원 국·도립화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나서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진안군청을 찾아 전준성 진안군수와 제21대 총선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진안군 의료원은 재정지립도가 낮은 열악한 재정현황에서 군립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부산악권 지역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국·도립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의료원은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대구 코로나 확진환자 13명에 대한 입원치료를 전담한 바 있다.

아울러, 안호영 의원은 동부권 전문의료기관 운영과 감염병 전담 병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제21대 국회 개원 후 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고, 관련법제·개정 등을 통해 진안군의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또한 향후 지역현안 추진을 위해 군의회와 중재 및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장수에서 전하는 **고품질 힐링 뉴스**

장수군 농특산물 온라인 대표 쇼핑몰

# 장수몰

JANGSU MALL

NAVER   **검색하세요**